韓國心理學會誌: 社會問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2000, Vol. 6, No. 1, 85~117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박영신[1] · 김의철[2]

[1]인하대학교 교육학과 · [2]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에 대해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표집대상은 총 553명이었으며, 실직자 186명, 직장인 367명(중소기업 269명, 대기업 98명)이었다. 응답자들은 스트레스 경험, 사고와 정서, 행동과 대처, 사회적 지원, 극복방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에 자유반응형식으로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으로 정리된다. 첫째.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 관련 표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실직자는 적극적 문제해결 대처를, 직장인은 자기조절 대처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실직자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동일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반면, 직장인은 친구의 도움을 더 받았고, 직장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실직자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의 유사점으로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사고에 있어 적극적 문제해결이나 자기조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절망적 정서나 강한 각오를 많이 느꼈다. 둘째, 성별로나 생활만족도수준별로는 스트레스 경험이나 대처 및 사회적 지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람의 스트레스 표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있어서 자기조절이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부각되었으며, 사회적 지원의 내용 면에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친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6.25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만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GNP의 변화(통계청, 1999)를 보면 1962년에 $87 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빈곤상태였는데, 1970년에 $253, 1980년 $1,597, 1990년에 $5,886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1995년에 $10,823이 되므로써, $10,000이 넘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1996년에는 $1,1380로 계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었고, 1997년에는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국제적인 인정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삶의 풍요를 추구했다. 그러나 1997년 말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외국자본의 유출은 결국 IMF의 경제원조로 이어지게 되었고,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기업의 부실경영과 정부정책의 투명성 결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누적된 구조적 비효율과 취약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국민의 가치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1998년의 GNP($6,823)는 1991년($6,810)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하루아침에 7년 전의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1998년 8월의 실질 실업률이 10%대에 이르렀고 실업자도 250여만 명에 달하였다(LG경제연구원 분석; 중앙일보, 1998년 9월 24일). 또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1998년 8월 - 9월)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6%가 실직위기를 느꼈다(중앙일보 1998년 9월 23일). 뿐만 아니라 1998년 6월에서 7월까지 전국 4개 대도시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997년에 65%였는데, 1998년에는 60%로 낮아졌다. 중하류라는 사람의 비율은 22%에서 33%로 높아진 대신, 상류층 비중은 13%에서 7%로 줄었다(제일기획; 중앙일보 1998년 9월 16일). 이러한 자료는 IMF시대가 되면서 실직자수가 증가하고 직장인들의 실직 불안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외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의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갑작스러운 외환위기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기업의 부도와 실직율 가정파괴율은 실제적으로 국민의 심리와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실직율의 증가는 자살율의 증가(Platt, 1984)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직자 가정이 직장인 가정보다 별거 및 이혼의 비율이 7:2 정도로 높다는 서양의 연구결과(Liem & Liem, 1988)와 일치하여, IMF시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이 급증하였다. 물론 이러한 증가가 경제불황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996년까지만 해도 4.5% 밖에 되지 않던 이혼율이 1998년에는 6.8%(통계청, 1999)로 급증한 사실은 경제불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훈구(1988)는 IMF시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심리학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국민적 절망감, 국가 및 사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 리더쉽의 필요성, 상대적 박탈감, 집단간 갈등, 가정의 붕괴, 실업자 문제의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 자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련 문제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이 스트레스 모형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시각은, 경제불황기의 한국인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의 기초를 제공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모형에서 5개의 구성요소 중에 상황적 요인을 포함하고, 이러한 상황적 요인에 새로움, 예언불가능성, 사건의 불확실성과 같은 자극적 특성을, 긴급성(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가), 기간(스트레스 사건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시간적 불확실성(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도)과 같은 시간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새로움(한국은 IMF의 원조를 받아본 적이 없음), 예언불가능성(1997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 상황으로부터 누구도 IMF의 원조를 받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음), 사건의 불확실성(IMF의 지원을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모름)과 같은 자극적 특성의 면에서 볼 때, 1997년 12월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였던 외환위기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매우 자극적인 상황이다. 또한 시간적인 면에서도 긴급성(아무런 예고나 시간적 여유없이 급작스럽게 IMF지원을 받게 된 점), 기간(1999년 후반기 현재에도 계속 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시간적 불확실성(이러한 경제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정도)이라는 강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김춘근(1999)이 IMF시대 직장인과 실직자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0%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고, 20% 이상이 실직이나 실직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회적 지원의 면에서 볼 때,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각각 32%, 41%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망하고 무력감(31.7%)을 느꼈다.

한국 사회가 경제불황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장인이나 실직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b)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불황 이후 학생(고등학생, 대학생)과 성인(주부, 직장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이외에 불확실한 미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풍토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모두 경제적인 위기와 밀접히 관련되었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정서로는 성인의 경우 반성과 각오를 다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직장인은 각오 외에도 절망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으며, 대학생은 불안을 가장 많이 느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절약, 적극적 문제해결, 회피의 순서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없다는 반응이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가족, 선배 및 직장상사의 순서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정서적 도움의 반응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적 도움과 재정적 도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김의철 · 박영신, 1997)와 비교해 볼 때, IMF시대 이전과 IMF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큰 차이가 있었다. 즉 IMF시대 이전에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는 반면, IMF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IMF시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IMF시대 이전에는 스트레스 경험 후의 정서로서 불쾌감이 가장 많았다면, IMF시대에는 절약을 결심하고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강한 각오와 한편으로는 삶의 회의와 무능력감 등 절망적인 정서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IMF시대 이전에는 과반수 이상이 친구의 도움을 받은 반면에, IMF시대에는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나 되었다. 이와 같이 IMF지원 전후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관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원을 나타내었다. 즉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이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든, 기분전환을 노력한다던가 참고 수용하는 등의 자기조절적인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보다 친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사회적 지원으로서 정서적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

Lumsden(1981)은 스트레스를 자극으로서 또는 반응으로서 접근하는 입장은 이론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또한 경험과학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트레스는 문화적인 개념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란 고통받는 개인이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 자기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적 평가나 대처 및 사회적 지원과 같은 매개적인 심리기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transactional model of stress)이 주장되었다. Lasarus는 스트레스를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특정 사건이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형에서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IMF시대라는 상황 하에서 실직자와 직장인의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와 사회적 지원의 내용을 탐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문화적인 개념으로 수용할 때,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표상을 분석하기 위해 서양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하다.

Kim(1999b)은 심리학분야 연구에서의 두 가지 전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심리학이 주장하는 선형적 접근방법(top-down linear approach)으로서, 심리학이 북미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심리학자들이 인간 기능에 대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탐색(Kim, 1999a; Kim, Park, & Park, 1999; Koch & Leary, 1985)하기 위해 채택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심리학자들은 객관주의 요소주의 경험주의 논리실증주의 보편주의와 같은 과학철학에 기초하여, 실험법 추리통계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므로써,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관리하는 법칙들을 축척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심리학의 목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의식, 작인(作因, agency), 의미, 의도와 같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측면들은 오차로 고려되어 연구설계에서 제거된다. 또한 불안이라든가 동기 정서와 같은 심리적 구인들은 매개변인으로 간주된다. 문화는 맥락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어 연구설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는 모델구축적 접근방법(bottom-up model building approach)으로서, 인간의 의식 작인 의미 목표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구인이다. 자연과학에서 가능한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의 분리가, 인간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탐구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연구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에 대한 탐구라기 보다, 인간행동에 대한 확률적으로 있음직한 이해에 대한 탐색으로서, 가치가 부여된 활동이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는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기 보다, 의미있고 맥락화된 것이어야 한다.

토착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모델구축적 접근방법을 추구함을 Kim(1999b)은 지적한다. 토착심리학에서는 문화를 변인이나 준-독립변인, 범주(예컨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또는 개인적 특성들의 단순한 합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환경이나 인간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통합적 속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문화는 형태화된 변인들의 항목(a rubric of patterned variables)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화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른 색을 사용할 때, 다른 색들은 특정한 문화 내에서 작용하는 다른 변인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다른 색들은 얼굴 건물과 같은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응집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풍조나 정신을 전하기 위해 결합된다. 그림의 질은 색을 구성하는 파장들로 환원될 수 없다. 이처럼 문화란 구성원들에게 의미와 방향 및 응집력을 제공하는 구인이다. 그림에 활용된 다른 색들처럼,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나 심리적 욕구와 같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자연자원과 인간자원을 활용한다.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erry, Poortinga, Segall, Dasen, 1992). 그러나 내부 구성원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화가 없다면 인간은 기본적인 본능을 지닌 동물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 방식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화는 인간에게 자기

가 누구이고 무엇이 의미있는가를 정의해 주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Shweder, 1991). 문화를 통해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화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결론적으로 문화는 무엇이 의미있고 적절한가를 지각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

Kim(1999a)은 지난 100년간 행동주의 심리학 전통에 기초한 연구들이 객관적이고 제 삼자의 입장에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들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물론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도 제 삼자로서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행위자 본인으로서의 지식과 상호작용하는 대상 즉 상대방으로서의 지식에 의해 보충된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분석적이고 의미론적이며 선언적인 지식은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으며 제 삼자의 입장에서의 분석에 기초한 정보를 나타낸다. 반면에 현상학적이고 전체 속의 한 부분이며 절차적인 지식은, 주관적이고 행위자로서의 이해를 대표한다. 토착심리학자가 하는 주된 과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상학적이고 전체 속의 부분이며 절차적인 지식을, 분석적이고 의미론적이며 선언적인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의 선형모형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인간기능에 대한 반응적 모형(reactive model)과는 대조적으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생성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인과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모형(transaction model)에 기초한다. Bandura (1997, 1999)의 사회인지이론은 토착심리학의 기본적인 목표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Bandura는 관찰불가능한 인간의 속성들 예컨대 작인 의도 의미와 같은 것을 연구설계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러한 구인들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며 수정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모델에서 인간의 행동은 두 단계로 설명되었다. 첫째, 인간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인과관계1). 이러한 정보는 자기보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이 수행을 자기의 지각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과관계2). 나아가서 Bandura(1997)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며 수정하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생성적인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Bandura는 인간 기능의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측면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측면임을 확인하였다(김의철 · 박영신, 1999).

토착심리학은 과학적 심리학이 실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연과학적인 패라다임으로부터, 인간 정신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면을 통합하는 심리학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Kim & Berry, 1993; Kim, 1995)에 기초한다. 토착심리학적인 접근방법은 '스트레스'와 같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있는 개념들의 사회적인 표상을 검토할 필요를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Heider(1958)의 상식 심리학(naive psychology)과 유사하나,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모호하고 신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Heider(1958)와 달리, 사람들의 자신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복잡하게 정교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Harre, Clarke과 Carlo(1985)가 지적하듯이, 만약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신뢰롭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지식들은 본질적으로 상황의존적이며 경험적이고 전체 속의 한 부분이며 과정적이다. 이러한 지식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며 의미론적인 과학적 지식과는 구별되는데, 토착심리학자는 경험에 기초한 일상의 지식을 분석적인 과

학적 지식으로 변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경제불황기[1]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표상을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토착심리에 대한 파악이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됨을 인식하고,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최근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들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람의 스트레스 표상에 대한 종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연구에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를 검토하기로 한다.

방 법

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553명을 표집하였으며, IMF시대에 퇴직한 비자발적 실직자가 186명, 직장인이 367명이다. 직장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각각 269명 98명이 표집되었으며, 일반사원 및 중견사원들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441명, 여자 104명이었다. 실직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실직자의 평균연령은 37세(범위: 22 - 57세)였으며, 직장인은 평균 34세(범위: 19 - 53세)였다. 교육정도는 실직자가 고졸 46명(24.7%), 대졸 130명(69.9%), 대학원졸 7명(3.8%) 무응답 3명(1.6%)이고, 직장인도 고졸 117명(31.9%), 대졸 219명(59.7%), 대학원졸 17명(4.6%), 무응답 14명(3.8%)이었다. 경제생활정도의 면에서, 실직자는 상 1명(0.5%), 중 142명(76.3%), 하 37명(19.9%), 무응답 6명(3.2%)이었고, 직장인은 상 5명(1.4%), 중 282명(76.8%), 하 69명(18.8%), 무응답 11명(3.0%)이었다. 직위는 실직자가 사원 54명(29.0%), 대리 과장 52명(28.0%), 차장 부장 37명(19.9%), 이사 상무 전무 5명(2.7%), 무응답 38명(20.4%)이었으며, 직장인은 사원 180명(49.0%), 대리 과장 111명(30.2%), 차장 부장 16명(4.4%), 이사 상무 전무 7명(1.9%), 사장 회장 8명(2.2%) 무응답 45명(12.3%)이었다.

표집대상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직자와 직장인은 연령이나 교육정도 생활정도의 면에서 거의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단 직위의 면에서 볼 때,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차장이나 부장급이 많으며, 직장인은 사원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사원보다는 중견사원들이 상대적으로 실직을 더 많이 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표집대상

집단 / 성별	실직자(%)	직장인(%)			총계(%)
		중소기업	대기업	계	
남 자	160	204	77	281	441
여 자	25	58	21	79	104
무응답	1	7	-	7	8
계	186	269	98	367	553

도구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므로써, 특정 사건이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Lazarus와 Folkman(1984)은 5개의 요인 즉 상황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평가, 대처, 적응적 결과로 구성된 스트레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1) 이 연구에서 경제불황기는 IMF지원을 받은(1997년 12월 3일) 이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김의철과 박영신(1997)은 '한국인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에 대한 탐색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제작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단 모든 질문은 IMF시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사회적 표상으로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IMF시대 이후 최근에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 두 가지,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생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정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행동,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의 대처, 그러한 대처방법의 효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내용, IMF시대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본인, 가정, 학교, 기업, 정부)의 8개 자유반응형식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표집대상에 대한 배경정보의 측정을 위해, 성별, 연령, 학교 또는 직업, 학력, 경제생활 수준을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시 및 분석방법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업담당 교사나 교수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주부는 표집대상 학생들의 어머니 중에서 전업주부인 경우에 학생을 통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주부들의 취미모임에서 실시하였다. 직장인 경우는 다양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교육을 받기 위해 위탁된 경우 및 기타 기업체에서 일반사원 및 평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부탁하였다. 질문지의 실시 및 회수기간은 1998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이었다.

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한 자료의 응답을 각 질문 문항별로 모두 기록하였다. 기록한 응답들을 같은 내용끼리 분류 정리하여, 분류된 항목들에 대해 숫자와 명칭을 부여하였다. 각 항목에 부여한 숫자들을 기초로 자료입력을 위한 틀(coding scheme)을 1차 제작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틀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입력 틀에 기초하여 모든 응답들을 숫자로 양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빈도분석을 하여 빈도가 적게 나타난 문항들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다른 항목들에 포함하거나, 개념적으로 유사한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항목에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 명칭이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고, 각 범주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각 범주들을 대상으로 다시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각 범주에 대한 빈도를 결정하고,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자료를 갖고 분석한 각 문항 내의 범주와 각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에 대해, 직업유무별 성별 생활만족도별로 다시 빈도분석을 하였다. 직업유무 집단은 실직자와 직장인으로 구별하였다. 생활만족도 분석을 위해, 먼저 직업유무 집단별, 성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7개 영역에 대한 생활만족도 응답을 합한 전체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실직자와 직장인, 남자와 여자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 집단별 분석에서 실직자와 직장인의 자료를 합하여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였다. 5점 척도 상에서 '중간'(3점) 이상을 만족집단으로, '중간' 이하를 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만족집단은 실직자 36명(19.4%), 직장인 153명(41.7%)으로 구성되어 총 189명이었으며, 불만족집단은 실직자 32명(17.2%), 직장인 62명(16.9%)으로 구성되어 총 94명이었다. 보통집단(실직자 - 6명, 직장인 - 15명)과 무응답집단(실직자 - 112명, 직장인 - 137명)은 생활만족도수준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2.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

사건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실직자	직업유무(%) 직장인	성별(%) 남	성별(%) 녀	생활만족도(%) 만족	생활만족도(%) 불만족
1. 재정적 어려움	**228 (41.5)**	**67 (36.0)**	**161 (44.2)**	**173 (39.4)**	**53 (51.5)**	**73 (38.8)**	**43 (45.7)**
① 재정적 어려움	131 (23.8)	64 (34.4)	67 (18.4)	102 (23.2)	28 (27.2)	33 (17.6)	24 (25.5)
② 수입감소	52 (9.5)	2 (1.1)	50 (13.7)	42 (9.6)	9 (8.7)	21 (11.2)	11 (11.7)
③ 물가상승	28 (5.1)	1 (.5)	27 (7.4)	13 (3.0)	15 (14.6)	8 (4.3)	6 (6.4)
④ 금리인상/대출의 어려움	17 (3.1)	-	17 (4.7)	16 (3.6)	1 (1.0)	11 (5.9)	2 (2.1)
2. 불확실한 미래	**166 (30.2)**	**69 (37.1)**	**97 (26.6)**	**141 (32.1)**	**22 (21.4)**	**62 (33.0)**	**27 (28.7)**
① 본인의 실직불안	62 (11.3)	-	62 (17.0)	50 (11.4)	10 (9.7)	35 (18.6)	9 (9.6)
② 재취업	36 (6.5)	31 (16.7)	5 (1.4)	31 (7.1)	5 (4.9)	5 (2.7)	2 (2.1)
③ 장래에 대한 불안	34 (6.2)	17 (9.1)	17 (4.7)	31 (7.1)	3 (2.9)	6 (3.2)	10 (10.6)
④ 정신적 압박감	19 (3.5)	10 (5.4)	9 (2.5)	16 (3.6)	2 (1.9)	11 (5.9)	3 (3.2)
⑤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무력감	15 (2.7)	11 (5.9)	4 (1.1)	13 (3.0)	2 (1.9)	5 (2.7)	3 (3.2)
3. 직장생활	**73 (13.3)**	**1 (.5)**	**72 (19.8)**	**57 (13.0)**	**15 (14.6)**	**29 (15.4)**	**10 (10.6)**
① 어려운 회사상태	19 (3.5)	-	19 (5.2)	18 (4.1)	1 (1.0)	11 (5.9)	3 (3.2)
② 직장 내 압력	19 (3.5)	-	19 (5.2)	16 (3.6)	2 (1.9)	9 (4.8)	-
③ 업무증가	19 (3.5)	-	19 (5.2)	14 (3.2)	5 (4.9)	6 (3.2)	5 (5.3)
④ 직장분위기 침체	16 (2.9)	1 (.5)	15 (4.1)	9 (2.1)	7 (6.8)	3 (1.6)	2 (2.1)
4 사회풍토	**28 (5.1)**	**11 (5.9)**	**17 (4.7)**	**22 (5.0)**	**5 (4.9)**	**10 (5.3)**	**5 (5.3)**
①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	13 (2.4)	6 (3.2)	7 (1.9)	11 (2.5)	2 (1.9)	3 (1.6)	3 (3.2)
② 인정/인간관계 상실	8 (1.5)	4 (2.2)	4 (1.1)	8 (1.8)	-	2 (1.1)	1 (1.1)
③ IMF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7 (1.3)	1 (.5)	6 (1.6)	3 (.7)	3 (2.9)	5 (2.7)	1 (1.1)
5. 실직	**25 (4.5)**	**24 (12.9)**	**1 (.3)**	**22 (5.0)**	**2 (1.9)**	**6 (3.2)**	**4 (4.3)**
① 실직	13 (2.4)	13 (7.0)	-	12 (2.7)	1 (1.0)	4 (2.1)	3 (3.2)
② 할 일 없음	12 (2.2)	11 (5.9)	1 (.3)	10 (2.3)	1 (1.0)	2 (1.1)	1 (1.1)
6. 가정생활	**13 (2.4)**	**10 (5.4)**	**3 (.8)**	**13 (3.0)**	**-**	**4 (2.1)**	**2 (2.1)**
① 가정에서의 책임감	9 (1.6)	7 (3.8)	2 (.5)	9 (2.1)	-	4 (2.1)	-
② 가정불화	4 (.7)	3 (1.6)	1 (.3)	4 (.9)	-	-	2 (2.1)
7. 기타	**17 (3.1)**	**4 (2.2)**	**13 (3.6)**	**11 (2.5)**	**6 (5.8)**	**4 (2.1)**	**3 (3.2)**

결 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

표 2는 IMF시대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들이다. 전체적으로, 40% 이상의 응답자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30% 이상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10% 이상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이외에도 '사회풍토' '실직'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불확실한 미래' 범주에는 본인의 실직불안과 재취업 및 장래불안이, '직장생활' 범주에는 어려운 회사상태나 직장 내 압력이 포함되었다. '사회풍토' 범주는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대표적이다.

전체 경향과 일치하여 직장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확실한 미래' '직장생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직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재정적 어려움' '실직'의 순서이다. '불확실한 미래' 범주 내에서 실직자는 재취업 항목의 반응율이 가장 높은 반면, 직장인은 본인의 실직불안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각 범주에 대한 반응 순서가

동일하나,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실직불안이나 장래불안 등 미래가 불확실함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가 많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 볼 때, 만족집단이나 불만족집단 모두 전체집단의 반응순서와 일치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다.

요약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곤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직자는 특히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문제 등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직장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저하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사고와 정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해 응답자의

표 3.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사고

사고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적극적 문제해결	**171 (34.8)**	**62 (38.0)**	**109 (33.1)**	**140 (35.2)**	**29 (32.6)**	**76 (43.2)**	**29 (33.0)**
① 극복방안 강구/실행	44 (8.9)	17 (10.4)	27 (8.2)	36 (9.0)	7 (7.9)	20 (11.4)	6 (6.8)
② 자기개발/능력배양	42 (8.5)	15 (9.2)	27 (8.2)	38 (9.5)	3 (3.4)	21 (11.9)	6 (6.8)
③ 취업/창업/아르바이트 결심	38 (7.7)	23 (14.1)	15 (4.6)	33 (8.3)	5 (5.6)	12 (6.8)	8 (9.1)
④ 절약적 생활	29 (5.9)	1 (.6)	28 (8.5)	17 (4.3)	12 (13.5)	10 (5.7)	6 (6.8)
⑤ 미래에 대한 준비	18 (3.7)	6 (3.7)	12 (3.6)	16 (4.0)	2 (2.2)	13 (7.4)	3 (3.4)
2. 자기조절	**109 (22.2)**	**41 (25.2)**	**68 (20.7)**	**95 (23.9)**	**13 (14.6)**	**34 (19.3)**	**21 (23.9)**
① 노력/현실에 충실	31 (6.3)	11 (6.7)	20 (6.1)	30 (7.5)	1 (1.1)	9 (5.1)	7 (8.0)
② 극복하려는 생각	26 (5.3)	8 (4.9)	18 (5.5)	24 (6.0)	2 (2.2)	5 (2.8)	3 (3.4)
③ 반성	25 (5.1)	11 (6.7)	14 (4.3)	21 (5.3)	3 (3.4)	10 (5.7)	5 (5.7)
④ 자기조절	17 (3.5)	7 (4.3)	10 (3.0)	14 (3.5)	3 (3.4)	6 (3.4)	5 (5.7)
⑤ 수용/참는다	10 (2.0)	4 (2.5)	6 (1.8)	6 (1.5)	4 (4.5)	4 (2.3)	1 (1.1)
3. 현실 회피	**68 (13.8)**	**21 (12.9)**	**47 (14.3)**	**47 (11.8)**	**20 (22.5)**	**20 (11.4)**	**11 (12.5)**
① 상황회피	40 (8.1)	12 (7.4)	28 (8.5)	31 (7.8)	9 (10.1)	11 (6.3)	9 (10.2)
② 상황호전 막연히 소망	28 (5.7)	9 (5.5)	19 (5.8)	16 (4.0)	11 (12.4)	9 (5.1)	2 (2.3)
4. 불안	**68 (13.8)**	**17 (10.4)**	**51 (15.5)**	**56 (14.1)**	**12 (13.5)**	**21 (11.9)**	**11 (12.5)**
① 불안	24 (4.9)	2 (1.2)	22 (6.7)	18 (4.5)	6 (6.7)	7 (4.0)	3 (3.4)
② 죽고싶다/절망	12 (2.4)	5 (3.1)	7 (2.1)	8 (2.0)	4 (4.5)	6 (3.4)	4 (4.5)
③ 무기력/허무감	11 (2.2)	4 (2.5)	7 (2.1)	11 (2.8)	-	1 (.6)	3 (3.4)
④ 한탄	8 (1.6)	2 (1.2)	6 (1.8)	6 (1.5)	2 (2.2)	2 (1.1)	-
⑤ 무능력감	7 (1.4)	3 (1.8)	4 (1.2)	7 (1.8)	-	2 (1.1)	-
⑥ 힘들다	6 (1.2)	1 (.6)	5 (1.5)	6 (1.5)	-	3 (1.7)	1 (1.1)
5. 지도층에 대한 분노	**42 (8.5)**	**12 (7.4)**	**30 (9.1)**	**34 (8.5)**	**8 (9.0)**	**10 (5.7)**	**13 (14.8)**
6. 기타	**34 (6.9)**	**10 (6.1)**	**24 (7.3)**	**26 (6.5)**	**7 (7.9)**	**15 (8.5)**	**3 (3.4)**
① 기타	17 (3.5)	7 (4.3)	10 (3.0)	12 (3.0)	4 (4.5)	5 (2.8)	2 (2.3)
② 가족에 대한 배려	7 (1.4)	1 (.6)	6 (1.8)	6 (1.5)	1 (1.1)	6 (3.4)	-
③ 아무 생각없다	5 (1.0)	1 (.6)	4 (1.2)	4 (1.0)	1 (1.1)	3 (1.7)	-
④ IMF/경제적 어려움 인식	5 (1.0)	1 (.6)	4 (1.2)	4 (1.0)	1 (1.1)	1 (.6)	1 (1.1)

30% 이상이 반응하고, 그 다음으로 20% 이상이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현실회피' '불안' '지도층에 대한 분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 문제해결'의 하위항목으로는 극복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자기의 능력을 배양하고, 창업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기조절' 범주에는 현실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나 극복하려는 생각 및 반성 등의 항목이 대표적이다.

직업유무별로 볼 때,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전체적인 반응순서와 동일하게 적극적 문제해결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이 높은 반응율을 보인다. 그러나 직장인은 불안감이 실직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나, 남자는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현실회피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차이가 있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는 전체 반응순서와 일치하며, 만족집단이나 불만족집단 모두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이 나타나고 있다.

요약해 보면,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복방안을 찾고 자기능력을 키우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나 극복하려는 생각과 같이 자기를 조절하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자는 극복하려는 노력 등 자기조절에 대한 생각을 여자보다 많이 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상황호전을 막연히 소망하는 등 현실회피적인 생각을 더욱 많이 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정서는, 전체적으로 '절망' '각오'에 대한 반응율이 20% 이상을, '불안'과 '분노'에 대한 반응율이 10% 이상을 보이며, 이외에도 '경제현실인식' '상황호전 소망' '불쾌감'이 포함되어 있다. '절망'에는 허무함이나 무능력감이, '각오'에는 능력개발에 대한 각오나 창업결심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유무별로는,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절망과 각오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은 점에서 동일하나, 다음으로 직장인은 불안의 반응율이, 실직자는 분노의 반응율이 높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절망, 각오의 순서로 반응율이 높으나,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분노가, 여자는 남자보다 불안이 더 높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 만족집단은 절망 각오 불안의 순서이나, 불만족집단은 절망 각오 분노 불안의 순서로 나타나므로써, 불만족집단이 상대적으로 지도층 등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만족집단은 불안의 정도가 높다.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 절망의 반응율이 가장 높으나, 불만족집단이 상대적으로 절망의 정도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실직자나 직장인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삶에 대한 회의나 무능력감 등 절망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으로 능력개발에 대한 각오를 많이 한다. 직업유무별로는 직장인이, 성별로는 여자가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며, 분노감은 실직자와 남자가 더 많이 느낀다. 또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로 인해 절망이나 분노의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행동과 대처

표 5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의 행동으로서, '현실회피'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 모두 2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이외에도 '절약' '불만표시' 범주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회피'에는 문제회피, 음주나 흡연 등이 '자기조절'에는 기분전환 노력이나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 등이, '적극적 문제해결'에는 공부/자기개발 대화/협조 정보수집 구직활동 등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4.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정서

정서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절망	**150 (29.3)**	**63 (36.6)**	**87 (25.6)**	**129 (31.5)**	**20 (20.6)**	**45 (25.1)**	**30 (33.0)**
① 허무/삶의 회의	38 (7.4)	13 (7.6)	25 (7.4)	32 (7.8)	5 (5.2)	15 (8.4)	9 (9.9)
② 무능력감	29 (5.7)	15 (8.7)	14 (4.1)	25 (6.1)	4 (4.1)	6 (3.4)	7 (7.7)
③ 초라함/비참함/자신감상실	28 (5.5)	16 (9.3)	12 (3.5)	24 (5.9)	4 (4.1)	11 (6.1)	4 (4.4)
④ 절망으로 인한 상황회피	18 (3.5)	7 (4.1)	11 (3.2)	18 (4.4)	-	6 (3.4)	2 (2.2)
⑤ 무기력	15 (2.9)	6 (3.5)	9 (2.6)	11 (2.7)	4 (4.1)	4 (2.2)	3 (3.3)
⑥ 절망/죽고 싶다	11 (2.1)	5 (2.9)	6 (1.8)	9 (2.2)	2 (2.1)	1 (.6)	3 (3.3)
⑦ 한탄	11 (2.1)	1 (.6)	10 (2.9)	10 (2.4)	1 (1.0)	2 (1.1)	2 (2.2)
2. 각오	**121 (23.6)**	**44 (25.6)**	**77 (22.6)**	**97 (23.7)**	**21 (21.6)**	**36 (20.1)**	**22 (24.2)**
① 능력개발/각오	34 (6.6)	8 (4.7)	26 (7.6)	29 (7.1)	4 (4.1)	8 (4.5)	5 (5.5)
② 각오/다짐	21 (4.1)	8 (4.7)	13 (3.8)	19 (4.6)	2 (2.1)	7 (3.9)	2 (2.2)
③ 취업/창업 결심	19 (3.7)	16 (9.3)	3 (.9)	17 (4.2)	2 (2.1)	5 (2.8)	5 (5.5)
④ 절약결심	17 (3.3)	-	17 (5.0)	8 (2.0)	8 (8.2)	5 (2.8)	6 (6.6)
⑤ 반성	17 (3.3)	8 (4.7)	9 (2.6)	14 (3.4)	3 (3.1)	3 (1.7)	1 (1.1)
⑥ 고민/계획	13 (2.5)	4 (2.3)	9 (2.6)	10 (2.4)	2 (2.1)	8 (4.5)	3 (3.3)
3. 불안	**66 (12.9)**	**16 (9.3)**	**50 (14.7)**	**49 (12.0)**	**16 (16.5)**	**29 (16.2)**	**8 (8.8)**
① 불안/위기감	48 (9.4)	11 (6.4)	37 (10.9)	34 (8.3)	13 (13.4)	21 (11.7)	5 (5.5)
② 답답함/막막함	18 (3.5)	5 (2.9)	13 (3.8)	15 (3.7)	3 (3.1)	8 (4.5)	3 (3.3)
4. 분노	**64 (12.5)**	**21 (12.2)**	**43 (12.6)**	**55 (13.4)**	**9 (9.3)**	**24 (13.4)**	**16 (17.6)**
① 지도층에 대한 분노	34 (6.6)	11 (6.4)	23 (6.8)	31 (7.6)	3 (3.1)	13 (7.3)	10 (11.0)
② 배신감/비정함	13 (2.5)	6 (3.5)	7 (2.1)	12 (2.9)	1 (1.0)	6 (3.4)	2 (2.2)
③ 분노	9 (1.8)	4 (2.3)	5 (1.5)	6 (1.5)	3 (3.1)	3 (1.7)	2 (2.2)
④ 회사에 대한 불만	8 (1.6)	-	8 (2.4)	6 (1.5)	2 (2.1)	2 (1.1)	2 (2.2)
5. 경제 현실 인식	**44 (8.6)**	**8 (4.7)**	**36 (10.6)**	**32 (7.8)**	**11 (11.3)**	**19 (10.6)**	**3 (3.3)**
① 사회경제의 어려움 인식	19 (3.7)	5 (2.9)	14 (4.1)	15 (3.7)	4 (4.1)	7 (3.9)	1 (1.1)
② IMF상황 인식	11 (2.1)	1 (.6)	10 (2.9)	7 (1.7)	3 (3.1)	3 (1.7)	2 (2.2)
③ 가정경제의 어려움 인식	9 (1.8)	-	9 (2.6)	6 (1.5)	3 (3.1)	6 (3.4)	-
④ 돈의 가치 인식	5 (1.0)	2 (1.2)	3 (.9)	4 (1.0)	1 (1.0)	3 (1.7)	-
6. 상황호전 소망	**22 (4.3)**	**4 (2.3)**	**18 (5.3)**	**13 (3.2)**	**9 (9.3)**	**10 (5.6)**	**5 (5.5)**
7. 불쾌감	**21 (4.1)**	**3 (1.7)**	**18 (5.3)**	**16 (3.9)**	**5 (5.2)**	**6 (3.4)**	**2 (2.2)**
① 괴로움/힘들다	14 (2.7)	2 (1.2)	12 (3.5)	12 (2.9)	2 (2.1)	4 (2.2)	2 (2.2)
② 속상함/불쾌감	7 (1.4)	1 (.6)	6 (1.8)	4 (1.0)	3 (3.1)	2 (1.1)	-
8. 기타	**24 (4.7)**	**13 (7.6)**	**11 (3.2)**	**18 (4.4)**	**6 (6.2)**	**10 (5.6)**	**5 (5.5)**
① 기타	19 (3.7)	10 (5.8)	9 (2.6)	14 (3.4)	5 (5.2)	7 (3.9)	4 (4.4)
② 과거에 대한 향수	5 (1.0)	3 (1.7)	2 (.6)	4 (1.0)	1 (1.0)	3 (1.7)	1 (1.1)

직업유무별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데, 실직자는 '자기조절'과 '적극적 문제해결'이 동일하게 32.7%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반면에, 직장인은 '현실회피'의 반응율이 31.1%로 가장 높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현실회피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의 순서로 나타나는 점에서 같으나, 여자는 특히 절약에 대한 반응율이 2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가 있다.

표 5.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행동

행동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현실 회피	**136 (29.1)**	**41 (25.3)**	**95 (31.1)**	**112 (29.7)**	**22 (26.2)**	**46 (28.8)**	**27 (31.4)**
① 문제를 회피함	52 (11.1)	13 (8.0)	39 (12.8)	40 (10.6)	12 (14.3)	17 (10.6)	9 (10.5)
② 음주/흡연	51 (10.9)	16 (9.9)	35 (11.5)	50 (13.3)	-	15 (9.4)	14 (16.3)
③ 걱정만 한다	17 (3.6)	6 (3.7)	11 (3.6)	13 (3.4)	3 (3.6)	9 (5.6)	3 (3.5)
④ 잔다	8 (1.7)	1 (.6)	7 (2.3)	6 (1.6)	2 (2.4)	3 (1.9)	-
⑤ 운다/혼자 있는다	8 (1.7)	5 (3.1)	3 (1.0)	3 (.8)	5 (6.0)	2 (1.3)	1 (1.2)
2. 자기조절	**133 (28.5)**	**53 (32.7)**	**80 (26.2)**	**112 (29.7)**	**18 (21.4)**	**43 (26.9)**	**22 (25.6)**
① 기분전환 노력	63 (13.5)	32 (19.8)	31 (10.2)	51 (13.5)	10 (11.9)	17 (10.6)	10 (11.6)
② 현실에 충실	34 (7.3)	5 (3.1)	29 (9.5)	29 (7.7)	4 (4.8)	15 (9.4)	6 (7.0)
③ 자기조절	21 (4.5)	11 (6.8)	10 (3.3)	20 (5.3)	1 (1.2)	8 (5.0)	3 (3.5)
④ 참는다/수용	15 (3.2)	5 (3.1)	10 (3.3)	12 (3.2)	3 (3.6)	3 (1.9)	3 (3.5)
3. 적극적 문제해결	**116 (24.8)**	**53 (32.7)**	**63 (20.7)**	**97 (25.7)**	**18 (21.4)**	**40 (25.0)**	**21 (24.4)**
① 공부/자기개발	30 (6.4)	19 (11.7)	11 (3.6)	28 (7.4)	1 (1.2)	7 (4.4)	8 (9.3)
② 대화/협조	24 (5.1)	3 (1.9)	21 (6.9)	19 (5.0)	5 (6.0)	11 (6.9)	5 (5.8)
③ 정보수집	21 (4.5)	12 (7.4)	9 (3.0)	16 (4.2)	5 (6.0)	6 (3.8)	3 (3.5)
④ 구직활동	14 (3.0)	8 (4.9)	6 (2.0)	9 (2.4)	5 (6.0)	3 (1.9)	3 (3.5)
⑤ 계획/해결방법 모색	13 (2.8)	7 (4.3)	6 (2.0)	11 (2.9)	2 (2.4)	4 (2.5)	2 (2.3)
⑥ 실행	7 (1.5)	2 (1.2)	5 (1.6)	7 (1.9)	-	4 (2.5)	-
⑦ 자기주장/설득	7 (1.5)	2 (1.2)	5 (1.6)	7 (1.9)	-	5 (3.1)	-
4. 절약	**44 (9.4)**	**3 (1.9)**	**41 (13.4)**	**27 (7.2)**	**17 (20.2)**	**21 (13.1)**	**5 (5.8)**
① 절약	36 (7.7)	2 (1.2)	34 (11.1)	23 (6.1)	13 (15.5)	18 (11.3)	3 (3.5)
② 건전한 소비생활	8 (1.7)	1 (.6)	7 (2.3)	4 (1.1)	4 (4.8)	3 (1.9)	2 (2.3)
5. 불만 표시	**24 (5.1)**	**7 (4.3)**	**17 (5.6)**	**20 (5.3)**	**4 (4.8)**	**9 (5.6)**	**6 (7.0)**
① 짜증/신경질	10 (2.1)	3 (1.9)	7 (2.3)	7 (1.9)	3 (3.6)	2 (1.3)	3 (3.5)
② 욕설/물건파괴	8 (1.7)	3 (1.9)	5 (1.6)	7 (1.9)	1 (1.2)	4 (2.5)	1 (1.2)
③ 정부 비판	6 (1.3)	1 (.6)	5 (1.6)	6 (1.6)	-	3 (1.9)	2 (2.3)
6. 기타	**14 (3.0)**	**5 (3.1)**	**9 (3.0)**	**9 (2.4)**	**5 (6.0)**	**1 (.6)**	**5 (5.8)**

생활만족도 면에서 볼 때,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 전체반응 경향과 일치하여 현실회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로서 모두 2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실직자와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행동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실직자는 기분전환을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기조절이나 공부를 통한 자기개발과 같은 적극적 문제해결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에, 직장인은 문제를 피하고 음주나 흡연을 하는 등 현실회피적인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절약이나 불만표시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절약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결과가 표 6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조절'과 '적극적 문제해결'이 3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회피'와 '절약'이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조절' 범주에는 기분전환 노력이나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적극적 문제해결' 범주에는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가 대표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6.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대처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자기조절	**166 (36.8)**	**50 (32.1)**	**116 (39.3)**	**137 (38.3)**	**27 (31.4)**	**54 (34.0)**	**31 (38.3)**
① 기분전환 노력	53 (11.8)	25 (16.0)	28 (9.5)	45 (12.6)	7 (8.1)	15 (9.4)	12 (14.8)
② 노력/현실에 충실	48 (10.6)	6 (3.8)	42 (14.2)	38 (10.6)	10 (11.6)	19 (11.9)	9 (11.1)
③ 자기조절	31 (6.9)	8 (5.1)	23 (7.8)	27 (7.5)	4 (4.7)	12 (7.5)	3 (3.7)
④ 참는다/수용	23 (5.1)	5 (3.2)	18 (6.1)	19 (5.3)	3 (3.5)	5 (3.1)	6 (7.4)
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11 (2.4)	6 (3.8)	5 (1.7)	8 (2.2)	3 (3.5)	3 (1.9)	1 (1.2)
2. 적극적 문제해결	**145 (32.2)**	**75 (48.1)**	**70 (23.7)**	**122 (34.1)**	**20 (23.3)**	**46 (28.9)**	**27 (33.3)**
① 공부/자기계발	50 (11.1)	35 (22.4)	15 (5.1)	45 (12.6)	5 (5.8)	15 (9.4)	11 (13.6)
② 적극적 처리	37 (8.2)	10 (6.4)	27 (9.2)	33 (9.2)	3 (3.5)	12 (7.5)	10 (12.3)
③ 대화	22 (4.9)	10 (6.4)	12 (4.1)	15 (4.2)	6 (7.0)	9 (5.7)	2 (2.5)
④ 정보획득	10 (2.2)	7 (4.5)	3 (1.0)	7 (2.0)	3 (3.5)	1 (.6)	2 (2.5)
⑤ 구체적인 계획 수립	9 (2.0)	5 (3.2)	4 (1.4)	9 (2.5)	-	5 (3.1)	1 (1.2)
⑥ 구직활동	9 (2.0)	6 (3.8)	3 (1.0)	6 (1.7)	2 (2.3)	2 (1.3)	1 (1.2)
⑦ 대안/해결책 찾음	8 (1.8)	2 (1.3)	6 (2.0)	7 (2.0)	1 (1.2)	2 (1.3)	-
3. 회피	**72 (16.0)**	**23 (14.7)**	**49 (16.6)**	**60 (16.8)**	**12 (14.0)**	**25 (15.7)**	**16 (19.8)**
① 대처하지 않고 피함	37 (8.2)	8 (5.1)	29 (9.8)	32 (8.9)	5 (5.8)	13 (8.2)	8 (9.9)
② 상황회피	15 (3.3)	5 (3.2)	10 (3.4)	11 (3.1)	4 (4.7)	5 (3.1)	3 (3.7)
③ 음주/흡연	13 (2.9)	7 (4.5)	6 (2.0)	12 (3.4)	1 (1.2)	4 (2.5)	4 (4.9)
④ 잔다	7 (1.6)	3 (1.9)	4 (1.4)	5 (1.4)	2 (2.3)	3 (1.9)	1 (1.2)
4. 절약	**52 (11.5)**	**3 (1.9)**	**49 (16.6)**	**27 (7.5)**	**24 (27.9)**	**26 (16.4)**	**5 (6.2)**
① 절약	43 (9.5)	3 (1.9)	40 (13.6)	21 (5.9)	21 (24.4)	19 (11.9)	3 (3.7)
② 건전한 소비생활	9 (2.0)	-	9 (3.1)	6 (1.7)	3 (3.5)	7 (4.4)	2 (2.5)
5. 기타	**16 (3.5)**	**5 (3.2)**	**11 (3.7)**	**12 (3.4)**	**3 (3.5)**	**8 (5.0)**	**2 (2.5)**

직업유무별로 두 집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실직자의 48.1%가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 회피의 순서이다. 반면에 직장인은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3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적극적 문제해결, 회피, 절약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조절 범주에 포함하는 항목들을 비교하여 보면, 실직자는 기분전환노력 항목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반면, 직장인은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 항목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남자의 경우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반응율이 두 번째로 높으나, 여자의 경우는 절약이 두 번째로 현저하게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 볼 때,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반응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만족집단은 절약의 반응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만족집단은 회피의 반응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실직자와 직장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직자는 자기계발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적인 대처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기분전환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직장인은 현실에 충실하려는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많이 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7. 각 대처에 따른 효과

〈실직자〉

효과 \ 대처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	회피	절약
매우 효과적임	12 (24.5)	13 (17.8)	2 (10.0)	-
약간 효과적임	30 (61.2)	49 (67.1)	10 (50.0)	3 (100.0)
효과 없음	6 (12.2)	9 (12.3)	7 (35.0)	-
오히려 악화됨	1 (2.0)	2 (2.7)	1 (5.0)	-
계	**49 (100.0)**	**73 (100.0)**	**20 (100.0)**	**3 (100.0)**

〈직장인〉

효과 \ 대처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	회피	절약
매우 효과적임	17 (15.2)	8 (11.6)	2 (4.8)	7 (14.9)
약간 효과적임	78 (69.6)	49 (71.0)	21 (50.0)	32 (68.1)
효과 없음	16 (14.3)	10 (14.5)	17 (40.5)	8 (17.0)
오히려 악화됨	1 (.9)	2 (2.9)	2 (4.8)	-
계	**112 (100.0)**	**69 (100.0)**	**42 (100.0)**	**47 (100.0)**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많이 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절약과 같은 대처양식을 많이 하는 차이가 있다.

표 7은 각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실직자와 직장인의 반응패턴은 거의 유사하다. 자기조절대처, 적극적 문제해결대처, 회피대처 모두 '약간 효과적'이다는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나, 회피대처의 경우 다른 대처방식에 비해 '효과없음'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도움을 준 사람, 사회적 지원의 내용, 도움을 준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의 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분석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없다'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고, 친구가 2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친구, 직장상사/선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유무별로 보면,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없다'는 반응율이 가장 많은 점에서 공통적이나, 그 다음으로 직장인은 친구(26.6%), 가족(12.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실직자는 친구와 가족의 반응율이 23.8%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없음의 반응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친구(25.9%) 가족(15.1%)의 순서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으나, 여자는 친구와 가족의 반응율이 24.3%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 볼 때,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 전체 반응경향과 일치하여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친구 가족 선배/직장상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누구도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반응은 불만족집단(44.8%)이 만족집단(38.1%)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실직자나 직장인, 남녀 모두 공통적이다. 실제 도움을 준 사람으로 직장인과 남자는 친구의 도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도움이 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직자와 여

표 8.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

도움 준 사람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없음	**160 (40.1)**	**44 (30.8)**	**116 (45.3)**	**129 (39.8)**	**28 (40.0)**	**56 (38.1)**	**30 (44.8)**
① 없음	148 (37.1)	40 (28.0)	108 (42.2)	121 (37.3)	25 (35.7)	53 (36.1)	29 (43.3)
② 스스로 해결	12 (3.0)	4 (2.8)	8 (3.1)	8 (2.5)	3 (4.3)	3 (2.0)	1 (1.5)
2. 친구	**102 (25.6)**	**34 (23.8)**	**68 (26.6)**	**84 (25.9)**	**17 (24.3)**	**34 (23.1)**	**18 (26.9)**
① 친구	57 (14.3)	28 (19.6)	29 (11.3)	47 (14.5)	9 (12.9)	17 (11.6)	9 (13.4)
② 동료	45 (11.3)	6 (4.2)	39 (15.2)	37 (11.4)	8 (11.4)	17 (11.6)	9 (13.4)
3. 가족	**66 (16.5)**	**34 (23.8)**	**32 (12.5)**	**49 (15.1)**	**17 (24.3)**	**27 (18.4)**	**10 (14.9)**
① 가족	27 (6.8)	15 (10.5)	12 (4.7)	20 (6.2)	7 (10.0)	8 (5.4)	5 (7.5)
② 배우자	23 (5.8)	10 (7.0)	13 (5.1)	19 (5.9)	4 (5.7)	15 (10.2)	3 (4.5)
③ 부모	16 (4.0)	9 (6.3)	7 (2.7)	10 (3.1)	6 (8.6)	4 (2.7)	2 (3.0)
4. 직장상사/선배	**27 (6.8)**	**3 (2.1)**	**24 (9.4)**	**23 (7.1)**	**3 (4.3)**	**12 (8.2)**	**2 (3.0)**
① 직장상사	14 (3.5)	-	14 (5.5)	11 (3.4)	2 (2.9)	9 (6.1)	-
② 선배	13 (3.3)	3 (2.1)	10 (3.9)	12 (3.7)	1 (1.4)	3 (2.0)	2 (3.0)
5. 기타	**44 (11.0)**	**28 (19.6)**	**16 (6.3)**	**39 (12.0)**	**5 (7.1)**	**18 (12.2)**	**7 (10.4)**
① 기타	18 (4.5)	11 (7.7)	7 (2.7)	15 (4.6)	3 (4.3)	6 (4.1)	1 (1.5)
② 공공기관(교육/행사)	17 (4.3)	12 (8.4)	5 (2.0)	16 (4.9)	1 (1.4)	7 (4.8)	5 (7.5)
③ 주변사람들	5 (1.3)	4 (2.8)	1 (.4)	5 (1.5)	-	2 (1.4)	1 (1.5)
④ 친척	4 (1.0)	1 (.7)	3 (1.2)	3 (.9)	1 (1.4)	3 (2.0)	-

자의 경우는 친구와 가족의 도움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적은 반응율이나 직장상사/선배가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다. 생활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나 불만족하는 사람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친구 가족의 순서이나, 불만족집단이 만족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표 9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정서적 도움'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정보적 도움' 및 '없음'이 20% 이상이며, 그 외에 '재정적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도움'에는 정신적 위안, 진실한 대화, 격려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고, 정보적 도움 범주에는 조언, 구직정보제공과 같은 내용들이 대표적이다.

직업유무별로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는 정보적 도움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도움 및 없음의 순서를 보인다. 반면에 직장인은 정서적 도움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없음, 정보적 도움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는 전체 경향성과 일치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정서적 도움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보적 도움, 없음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만족도를 보면, 만족집단은 정서적 도움(41.8%)을 매우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 없다는 반응이 높은데 비해, 불만족집단은 정서적 반응과 없다는 반응이 모두 32.7%로서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하면, 직장인은 정신적 위안과 같은 정서적 도움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으나, 실직자는 구직정보의 제공이나 조언과 같은 정보적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 또한 생활에서 불만족하는 집단일수록 만족집단보다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내용

지원의 내용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정서적 도움	**110 (34.8)**	**40 (33.9)**	**70 (35.4)**	**90 (34.9)**	**19 (35.8)**	**51 (41.8)**	**16 (32.7)**
① 정신적 위안	42 (13.3)	12 (10.2)	30 (15.2)	37 (14.3)	5 (9.4)	18 (14.8)	11 (22.4)
② 진실한 대화	25 (7.9)	9 (7.6)	16 (8.1)	18 (7.0)	7 (13.2)	12 (9.8)	1 (2.0)
③ 격려	24 (7.6)	9 (7.6)	15 (7.6)	19 (7.4)	4 (7.5)	14 (11.5)	1 (2.0)
④ 위로	19 (6.0)	10 (8.5)	9 (4.5)	16 (6.2)	3 (5.7)	7 (5.7)	3 (6.1)
2. 정보적 도움	**89 (28.2)**	**43 (36.4)**	**46 (23.2)**	**73 (28.3)**	**15 (28.3)**	**29 (23.8)**	**11 (22.4)**
① 조언	41 (13.0)	16 (13.6)	25 (12.6)	37 (14.3)	4 (7.5)	14 (11.5)	5 (10.2)
② 정보제공/구직알선	35 (11.1)	20 (16.9)	15 (7.6)	26 (10.1)	8 (15.1)	11 (9.0)	3 (6.1)
③ 교육/지도	13 (4.1)	7 (5.9)	6 (3.0)	10 (3.9)	3 (5.7)	4 (3.3)	3 (6.1)
3. 없음	**83 (26.3)**	**23 (19.5)**	**60 (30.3)**	**68 (26.4)**	**12 (22.6)**	**32 (26.2)**	**16 (32.7)**
4. 재정적 도움	**22 (7.0)**	**8 (6.8)**	**14 (7.1)**	**16 (6.2)**	**6 (11.3)**	**8 (6.6)**	**4 (8.2)**
5. 기타	**12 (3.8)**	**4 (3.4)**	**8 (4.0)**	**11 (4.3)**	**1 (1.9)**	**2 (1.6)**	**2 (4.1)**

표 10. 도움을 준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의 효과

〈실직자〉

효과 \ 사람	없음	친구	가족	선배/직장상사
매우 효과적임	-	3 (8.8)	14 (42.4)	-
약간 효과적임	-	28 (82.4)	17 (51.5)	3 (100.0)
효과 없음	9 (100.0)	3 (8.8)	2 (6.1)	-
오히려 악화됨	-	-	-	-
계	**9 (100.0)**	**34 (100.0)**	**33 (100.0)**	**3 (100.0)**

〈직장인〉

효과 \ 사람	없음	친구	가족	선배/직장상사
매우 효과적임	-	13 (20.3)	14 (45.2)	7 (29.2)
약간 효과적임	-	45 (70.3)	17 (54.8)	16 (66.7)
효과 없음	16 (100.0)	5 (7.8)	-	1 (4.2)
오히려 악화됨	-	1 (1.6)	-	-
계	**16 (100.0)**	**64 (100.0)**	**31 (100.0)**	**24 (100.0)**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사회적 지원을 해 준 효과를 분석한 것이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실직자와 직장인은 동일한 반응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친구 및 가족의 사회적 지원 모두 약간 효과적이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점에서 공통적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원은 매우 효과적이다는 반응이 약간 효과적이다는 반응율과 거의 근접한다. 또한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친구보다는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할 수 있다.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을 본인, 가정, 학교, 기업, 정부의 차원에서 응답한 결과가 표 11에서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은 본인의 대처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조절'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자기계발'도 3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절약도 약 20%에 가까운 반응율을 보이며, 이외에 '건전한 소비생활' '구직/대책마련' 범주가 포함되었다. '자기조절' 범주에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노력/성실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포함되고, '자기계발' 범주에는 능력향상과 공부/기술습득이 대표적이다.

직업유무별로 보면, 실직자는 '자기계발' 범주가 40% 이상의 매우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에 대해 30% 이상이 응답하고 있다. 직장인 경우는 '자기조절' 범주가 약 40% 가까운 응답을 보이며, '절약'과 '자기계발'이 거의 유사한 반응율을 나타낸다. 성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자기조절(38.1%)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34.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여자는 절약(39.1%)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32.6%)의 순서이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 볼 때,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 전체 반응경향과 일치하여

표 11.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본인

집단 / 대처방안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자기조절	**189 (37.4)**	**59 (34.5)**	**130 (38.8)**	**155 (38.1)**	**30 (32.6)**	**72 (39.8)**	**31 (34.1)**
① 자기 일에 충실	84 (16.6)	9 (5.3)	75 (22.4)	67 (16.5)	15 (16.3)	33 (18.2)	14 (15.4)
② 노력/성실	27 (5.3)	11 (6.4)	16 (4.8)	24 (5.9)	2 (2.2)	11 (6.1)	2 (2.2)
③ 적극성/자신감	25 (4.9)	14 (8.2)	11 (3.3)	22 (5.4)	3 (3.3)	8 (4.4)	5 (5.5)
④ 긍정적인 태도 유지 노력	18 (3.6)	8 (4.7)	10 (3.0)	14 (3.4)	4 (4.3)	4 (2.2)	3 (3.3)
⑤ 의식/습관의 변화	18 (3.6)	7 (4.1)	11 (3.3)	12 (2.9)	5 (5.4)	9 (5.0)	1 (1.1)
⑥ 건강관리	11 (2.2)	6 (3.5)	5 (1.5)	11 (2.7)	-	5 (2.8)	4 (4.4)
⑦ 인내/수용	6 (1.2)	4 (2.3)	2 (.6)	5 (1.2)	1 (1.1)	2 (1.1)	2 (2.2)
2. 자기계발	**154 (30.4)**	**73 (42.7)**	**81 (24.2)**	**142 (34.9)**	**11 (12.0)**	**54 (29.8)**	**29 (31.9)**
① 자기계발	59 (11.7)	27 (15.8)	32 (9.6)	55 (13.5)	3 (3.3)	21 (11.6)	6 (6.6)
② 능력향상	37 (7.3)	15 (8.8)	22 (6.6)	35 (8.6)	2 (2.2)	13 (7.2)	10 (11.0)
③ 공부/기술습득	30 (5.9)	19 (11.1)	11 (3.3)	28 (6.9)	2 (2.2)	13 (7.2)	8 (8.8)
④ 자기경쟁력 강화	15 (3.0)	3 (1.8)	12 (3.6)	14 (3.4)	1 (1.1)	5 (2.8)	2 (2.2)
⑤ 미래대비/재충전	13 (2.6)	9 (5.3)	4 (1.2)	10 (2.5)	3 (3.3)	2 (1.1)	3 (3.3)
3. 절약	**97 (19.2)**	**15 (8.8)**	**82 (24.5)**	**60 (14.7)**	**36 (39.1)**	**32 (17.7)**	**21 (23.1)**
① 절약	83 (16.4)	14 (8.2)	69 (20.6)	52 (12.8)	31 (33.7)	29 (16.0)	16 (17.6)
② 지출감소	14 (2.8)	1 (.6)	13 (3.9)	8 (2.0)	5 (5.4)	3 (1.7)	5 (5.5)
4. 건전한 소비생활	**29 (5.7)**	**1 (.6)**	**28 (8.4)**	**18 (4.4)**	**11 (12.0)**	**13 (7.2)**	**2 (2.2)**
① 과소비 억제	9 (1.8)	-	9 (2.7)	6 (1.5)	3 (3.3)	4 (2.2)	-
② 합리적인 소비	8 (1.6)	-	8 (2.4)	5 (1.2)	3 (3.3)	5 (2.8)	1 (1.1)
③ 계획적인 지출	7 (1.4)	1 (.6)	6 (1.8)	5 (1.2)	2 (2.2)	4 (2.2)	1 (1.1)
④ 아껴쓰기	5 (1.0)	-	5 (1.5)	2 (.5)	3 (3.3)	-	-
5. 구직/대책마련	**20 (4.0)**	**14 (8.2)**	**6 (1.8)**	**18 (4.4)**	**2 (2.2)**	**6 (3.3)**	**5 (5.5)**
① 구직 창업노력	11 (2.2)	9 (5.3)	2 (.6)	10 (2.5)	1 (1.1)	4 (2.2)	1 (1.1)
② 대책마련/실행	9 (1.8)	5 (2.9)	4 (1.2)	8 (2.0)	1 (1.1)	2 (1.1)	4 (4.4)
6. 기타	**17 (3.4)**	**9 (5.3)**	**8 (2.4)**	**14 (3.4)**	**2 (2.2)**	**4 (2.2)**	**3 (3.3)**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 절약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MF 극복을 위해 본인이 대처해야 하는 방안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기조절이 가장 많이 부각되고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과 절약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실직자는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직장인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등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을 한다던가 절약하는 방안을 많이 채택하였다. 성별로 볼 때, 남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등 자기조절하는 방안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면, 여자는 지출을 감소하는 등 절약의 방안을 가장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계발 방안에 관심이 많은 반면, 여자는 절약하는 방안을 더욱 많이 채택하고 있다.

한편 가정에서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이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절약'이라고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정의 화목' '건전한 소비생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한 소비생활' 범주에는 낭비 줄이기, 합리적인 소비, 아껴쓰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유무별로 보면, 직장인은 '절약'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직자의 경우 '가정의 화목'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절약'의 순서이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절약'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나, 그 다음으로 남자는 '가정의 화목', 여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차이가 있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반응 경향과 일치하여 과반수 이상이 절

표 12.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가정

대처방안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절약	**235 (49.2)**	**62 (39.0)**	**173 (54.2)**	**186 (48.3)**	**46 (52.9)**	**93 (51.7)**	**48 (57.1)**
① 절약	179 (37.4)	53 (33.3)	126 (39.5)	148 (38.4)	29 (33.3)	72 (40.0)	35 (41.7)
② 지출감소	38 (7.9)	6 (3.8)	32 (10.0)	27 (7.0)	10 (11.5)	16 (8.9)	6 (7.1)
③ 물자절약	12 (2.5)	1 (.6)	11 (3.4)	5 (1.3)	7 (8.0)	2 (1.1)	5 (6.0)
④ 저축	6 (1.3)	2 (1.3)	4 (1.3)	6 (1.6)	-	3 (1.7)	2 (2.4)
2. 가정의 화목	**129 (27.0)**	**74 (46.5)**	**55 (17.2)**	**112 (29.1)**	**16 (18.4)**	**42 (23.3)**	**16 (19.0)**
① 화목/대화	84 (17.6)	45 (28.3)	39 (12.2)	73 (19.0)	10 (11.5)	22 (12.2)	13 (15.5)
② 이해/격려	38 (7.9)	24 (15.1)	14 (4.4)	34 (8.8)	4 (4.6)	18 (10.0)	3 (3.6)
③ 협력	7 (1.5)	5 (3.1)	2 (.6)	5 (1.3)	2 (2.3)	2 (1.1)	-
3. 건전한 소비생활	**84 (17.6)**	**11 (6.9)**	**73 (22.9)**	**62 (16.1)**	**20 (23.0)**	**33 (18.3)**	**13 (15.5)**
① 낭비 줄이기	26 (5.4)	6 (3.8)	20 (6.3)	17 (4.4)	8 (9.2)	12 (6.7)	3 (3.6)
② 합리적인 소비	19 (4.0)	1 (.6)	18 (5.6)	17 (4.4)	2 (2.3)	7 (3.9)	3 (3.6)
③ 아껴쓰기	18 (3.8)	2 (1.3)	16 (5.0)	12 (3.1)	6 (6.9)	5 (2.8)	3 (3.6)
④ 규모있는 생활/가계부 작성	16 (3.3)	2 (1.3)	14 (4.4)	14 (3.6)	1 (1.1)	8 (4.4)	4 (4.8)
⑤ 쓰레기 줄이기/분리수거	5 (1.0)	-	5 (1.6)	2 (.5)	3 (3.4)	1 (.6)	-
4. 기타	**30 (6.3)**	**12 (7.5)**	**18 (5.6)**	**25 (6.5)**	**5 (5.7)**	**12 (6.7)**	**7 (8.3)**
① 기타	15 (3.1)	7 (4.4)	8 (2.5)	13 (3.4)	2 (2.3)	5 (2.8)	3 (3.6)
② 성실/역할에 충실	11 (2.3)	5 (3.1)	6 (1.9)	8 (2.1)	3 (3.4)	6 (3.3)	1 (1.2)
③ 가정교육	4 (.8)	-	4 (1.3)	4 (1.0)	-	1 (.6)	3 (3.6)

약에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가정의 화목, 건전한 소비생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IMF 극복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대처방안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절약을 강조하고 이외에 가정의 화목과 건전한 소비생활이 부각되었다. 특히 직장인은 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강조한 반면, 실직자는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는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절약을 가장 강조하나, 남자가 여자보다 가정의 화목을, 여자가 남자보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강조한다.

표 13은 학교가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이 약 과반수 가까이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IMF 극복을 위한 교육' '절약교육/건전소비교육' '학습자로서의 충실한 학교생활'이 모두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며, 이 외에도 '교육비 줄이기'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의 질 향상' 범주에는 실용적인 교육과 인성교육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IMF 극복을 위한 교육'으로는 정신교육과 경제현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직업유무별로 볼 때,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전체 반응 순서와 동일하다. 특히 실직자는 실용적인 교육과 인성교육 강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반응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교육의 질 향상' 범주에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나, 그 다음으로 여자는 '절약교육/건전소비교육'에 대한 반응이, 남자는 'IMF 극복을 위한 교육'에 대한 반응이 높다. 생활만족도의 면

표 13.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학교

대처방안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교육의 질 향상	**178 (47.1)**	**81 (63.8)**	**97 (38.6)**	**157 (51.3)**	**20 (29.4)**	**64 (44.4)**	**34 (45.3)**
① 실용적인 교육	67 (17.7)	38 (29.9)	29 (11.6)	60 (19.6)	6 (8.8)	25 (17.4)	12 (16.0)
② 인성교육 강화	60 (15.9)	31 (24.4)	29 (11.6)	52 (17.0)	8 (11.8)	21 (14.6)	11 (14.7)
③ 인재/전문인 양성	27 (7.1)	4 (3.1)	23 (9.2)	25 (8.2)	2 (2.9)	12 (8.3)	6 (8.0)
④ 교육의 질 향상	24 (6.3)	8 (6.3)	16 (6.4)	20 (6.5)	4 (5.9)	6 (4.2)	5 (6.7)
2. IMF 극복을 위한 교육	**71 (18.8)**	**24 (18.9)**	**47 (18.7)**	**63 (20.6)**	**8 (11.8)**	**31 (21.5)**	**13 (17.3)**
① IMF 극복 위한 정신교육	28 (7.4)	12 (9.4)	16 (6.4)	25 (8.2)	3 (4.4)	13 (9.0)	5 (6.7)
② 경제현실 교육	20 (5.3)	5 (3.9)	15 (6.0)	16 (5.2)	4 (5.9)	10 (6.9)	2 (2.7)
③ 미래지향적 교육	13 (3.4)	4 (3.1)	9 (3.6)	13 (4.2)	-	5 (3.5)	2 (2.7)
④ IMF 극복방안 교육	10 (2.6)	3 (2.4)	7 (2.8)	9 (2.9)	1 (1.5)	3 (2.1)	4 (5.3)
3. 절약교육/건전소비 교육	**50 (13.2)**	**11 (8.7)**	**39 (15.5)**	**32 (10.5)**	**17 (25.0)**	**18 (12.5)**	**11 (14.7)**
① 절약교육	21 (5.6)	6 (4.7)	15 (6.0)	15 (4.9)	5 (7.4)	13 (9.0)	3 (4.0)
② 절약	16 (4.2)	2 (1.6)	14 (5.6)	10 (3.3)	6 (8.8)	1 (.7)	4 (5.3)
③ 건전한 소비 교육	8 (2.1)	1 (.8)	7 (2.8)	7 (2.3)	1 (1.5)	4 (2.8)	2 (2.7)
④ 재활용/분리수거	5 (1.3)	2 (1.6)	3 (1.2)	-	5 (7.4)	-	2 (2.7)
4. 충실한 학교생활: 학습자	**39 (10.3)**	**4 (3.1)**	**35 (13.9)**	**30 (9.8)**	**8 (11.8)**	**16 (11.1)**	**8 (10.7)**
5. 교육비 줄이기	**31 (8.2)**	**4 (3.1)**	**27 (10.8)**	**16 (5.2)**	**14 (20.6)**	**10 (6.9)**	**8 (10.7)**
①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13 (3.4)	1 (.8)	12 (4.8)	5 (1.6)	7 (10.3)	6 (4.2)	2 (2.7)
② 수업료/잡비 인하	9 (2.4)	1 (.8)	8 (3.2)	4 (1.3)	5 (7.4)	1 (.7)	4 (5.3)
③ 촌지/교육비리 감소	9 (2.4)	2 (1.6)	7 (2.8)	7 (2.3)	2 (2.9)	3 (2.1)	2 (2.7)
6. 기타	**9 (2.4)**	**3 (2.4)**	**6 (2.4)**	**8 (2.6)**	**1 (1.5)**	**5 (3.5)**	**1 (1.3)**

에서는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이 전체 반응경향과 동일한 반응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IMF 극복을 위한 학교의 대처방안으로 사람들은 실용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약 과반수가 한다. 이외에 IMF 극복을 위한 정신교육이나 경제현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절약이나 건전한 소비 교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절약교육을 강조하고,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IMF 극복을 위해 대처해야 할 방안이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약 40%, '노사협력'이 약 30%이고, '기술개발'이 10% 이상, 이외에 '다양한 마케팅 전략' '기업윤리 확립' 범주가 나타났다. '구조조정'에는 구조의 개혁, 긴축 경영, 실리추구, 경영 합리화, 경제활동의 투명성 등이, '노사협력'에는 고통분담, 기업주의 정리해고 자제, 성실한 태도와 노력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직업유무별로 볼 때,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구조조정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외

표 14.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기업

대처방안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구조조정	**174 (39.7)**	**56 (39.2)**	**118 (40.0)**	**141 (39.5)**	**31 (40.8)**	**63 (38.9)**	**34 (42.0)**
① 구조조정/개혁	52 (11.9)	16 (11.2)	36 (12.2)	47 (13.2)	5 (6.6)	19 (11.7)	11 (13.6)
② 긴축경영/절약	29 (6.6)	7 (4.9)	22 (7.5)	17 (4.8)	11 (14.5)	6 (3.7)	4 (4.9)
③ 실리추구	26 (5.9)	11 (7.7)	15 (5.1)	22 (6.2)	4 (5.3)	10 (6.2)	6 (7.4)
④ 경영 합리화	21 (4.8)	5 (3.5)	16 (5.4)	18 (5.0)	3 (3.9)	6 (3.7)	4 (4.9)
⑤ 경제활동의 투명성	21 (4.8)	10 (7.0)	11 (3.7)	17 (4.8)	4 (5.3)	10 (6.2)	5 (6.2)
⑥ 계열사 축소/주력사업 중심	17 (3.9)	3 (2.1)	14 (4.7)	14 (3.9)	2 (2.6)	9 (5.6)	2 (2.5)
⑦ 자기자본으로 경영	8 (1.8)	4 (2.8)	4 (1.4)	6 (1.7)	2 (2.6)	3 (1.9)	2 (2.5)
2. 노사협력	**127 (29.0)**	**51 (35.7)**	**76 (25.8)**	**97 (27.2)**	**29 (38.2)**	**42 (25.9)**	**23 (28.4)**
① 노사 협력/고통분담	44 (10.0)	21 (14.7)	23 (7.8)	37 (10.4)	7 (9.2)	14 (8.6)	3 (3.7)
② 기업주의 정리해고 자제	38 (8.7)	19 (13.3)	19 (6.4)	27 (7.6)	10 (13.2)	12 (7.4)	8 (9.9)
③ 성실한 태도와 노력	22 (5.0)	2 (1.4)	20 (6.8)	13 (3.6)	9 (11.8)	8 (4.9)	5 (6.2)
④ 근로자에 대한 배려	14 (3.2)	4 (2.8)	10 (3.4)	12 (3.4)	2 (2.6)	4 (2.5)	4 (4.9)
⑤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	9 (2.1)	5 (3.5)	4 (1.4)	8 (2.2)	1 (1.3)	4 (2.5)	3 (3.7)
3. 기술 개발	**52 (11.9)**	**14 (9.8)**	**38 (12.9)**	**46 (12.9)**	**6 (7.9)**	**25 (15.4)**	**9 (11.1)**
① 기술/신상품/아이디어 개발	25 (5.7)	6 (4.2)	19 (6.4)	21 (5.9)	4 (5.3)	9 (5.6)	7 (8.6)
② 기술통한 경쟁력 강화	20 (4.6)	7 (4.9)	13 (4.4)	20 (5.6)	-	12 (7.4)	2 (2.5)
③ 싸고 질 좋은 제품 생산	7 (1.6)	1 (.7)	6 (2.0)	5 (1.4)	2 (2.6)	4 (2.5)	-
4. 다양한 마케팅 전략	**25 (5.7)**	**4 (2.8)**	**21 (7.1)**	**21 (5.9)**	**2 (2.6)**	**10 (6.2)**	**4 (4.9)**
① 수출신장/해외투자/세계화	18 (4.1)	4 (2.8)	14 (4.7)	16 (4.5)	2 (2.6)	5 (3.1)	2 (2.5)
② 제품 가격인하	7 (1.6)	-	7 (2.4)	5 (1.4)	-	5 (3.1)	2 (2.5)
5. 기업윤리 확립	**24 (5.5)**	**11 (7.7)**	**13 (4.4)**	**20 (5.6)**	**4 (5.3)**	**9 (5.6)**	**7 (8.6)**
① 기업윤리확립	18 (4.1)	8 (5.6)	10 (3.4)	14 (3.9)	4 (5.3)	5 (3.1)	6 (7.4)
② 기업주의 의식개혁	6 (1.4)	3 (2.1)	3 (1.0)	6 (1.7)	-	4 (2.5)	1 (1.2)
6. 기타	**36 (8.2)**	**7 (4.9)**	**29 (9.8)**	**32 (9.0)**	**4 (5.3)**	**13 (8.0)**	**4 (4.9)**
① 기타	19 (4.3)	1 (.7)	18 (6.1)	15 (4.2)	4 (5.3)	6 (3.7)	3 (3.7)
② 직원교육/인력관리	17 (3.9)	6 (4.2)	11 (3.7)	17 (4.8)	-	7 (4.3)	1 (1.2)

의 반응순서도 전체적인 반응경향성과 동일하였다. 성별 및 생활만족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은 IMF 극복을 위해 기업이 대처해야 할 방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가 협력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 경향성은 직업유무별로나 성별 및 생활만족도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5는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한 정책 수립'과 '구조개혁/효율적 행정' 범주가 모두 3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이외에 '정치인의 자질확립' '경기활성화'가 10% 이상이다. '적절한 정책수립' 범주에는 실업대책 마련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구조개혁/효율적 행정' 범주에는 개혁 및 부정부채의 척결과 같은 응답이 대표적이다.

직업유무별로 보면, 실직자는 '적절한 정책 수립'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전체 반응율과 동

표 15. IMF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정부

대처방안 \ 집단	전체(%)	직업유무(%)		성별(%)		생활만족도(%)	
		실직자	직장인	남	녀	만족	불만족
1. 적절한 정책 수립	**135 (30.5)**	**58 (38.2)**	**77 (26.5)**	**112 (30.8)**	**23 (30.7)**	**41 (25.0)**	**21 (25.9)**
① 실업대책 마련	36 (8.1)	18 (11.8)	18 (6.2)	30 (8.2)	6 (8.0)	10 (6.1)	6 (7.4)
② 현실적인 대책마련	31 (7.0)	11 (7.2)	20 (6.9)	27 (7.4)	4 (5.3)	7 (4.3)	7 (8.6)
③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25 (5.6)	8 (5.3)	17 (5.8)	22 (6.0)	3 (4.0)	7 (4.3)	4 (4.9)
④ 고용창출/안정(실업율 줄이기)	24 (5.4)	15 (9.9)	9 (3.1)	18 (4.9)	6 (8.0)	6 (3.7)	4 (4.9)
⑤ 사치단속/절약의식 고취 정책시행	10 (2.3)	6 (3.9)	4 (1.4)	8 (2.2)	2 (2.7)	5 (3.0)	-
⑥ 국민화합 유도하는 정책 제시	9 (2.0)	-	9 (3.1)	7 (1.9)	2 (2.7)	6 (3.7)	-
2. 구조개혁/효율적 행정	**133 (30.0)**	**49 (32.2)**	**84 (28.9)**	**112 (30.8)**	**19 (25.3)**	**56 (34.1)**	**23 (28.4)**
① 개혁/구조조정	57 (12.9)	22 (14.5)	35 (12.0)	53 (14.6)	3 (4.0)	32 (19.5)	7 (8.6)
② 부정부패 척결	29 (6.5)	16 (10.5)	13 (4.5)	23 (6.3)	5 (6.7)	8 (4.9)	8 (9.9)
③ 정부기구 축소	19 (4.3)	5 (3.3)	14 (4.8)	17 (4.7)	2 (2.7)	8 (4.9)	4 (4.9)
④ 예산낭비 절제/절약	18 (4.1)	4 (2.6)	14 (4.8)	10 (2.7)	8 (10.7)	3 (1.8)	3 (3.7)
⑤ 정부 인력 재정비	10 (2.3)	2 (1.3)	8 (2.7)	9 (2.5)	1 (1.3)	5 (3.0)	1 (1.2)
3. 정치인의 자질확립	**68 (15.3)**	**18 (11.8)**	**50 (17.2)**	**57 (15.7)**	**9 (12.0)**	**26 (15.9)**	**12 (14.8)**
① 신뢰성과 실천도	29 (6.5)	9 (5.9)	20 (6.9)	26 (7.1)	2 (2.7)	11 (6.7)	4 (4.9)
② 정치인의 각성	12 (2.7)	2 (1.3)	10 (3.4)	10 (2.7)	2 (2.7)	3 (1.8)	4 (4.9)
③ 여야 정치인의 협력	11 (2.5)	1 (.7)	10 (3.4)	9 (2.5)	2 (2.7)	5 (3.0)	1 (1.2)
④ 솔선수범	10 (2.3)	4 (2.6)	6 (2.1)	7 (1.9)	2 (2.7)	6 (3.7)	2 (2.5)
⑤ 정직성과 투명성	6 (1.4)	2 (1.3)	4 (1.4)	5 (1.4)	1 (1.3)	1 (.6)	1 (1.2)
4. 경기 활성화	**48 (10.8)**	**10 (6.6)**	**38 (13.1)**	**39 (10.7)**	**9 (12.0)**	**21 (12.8)**	**7 (8.6)**
① 기업/중소기업 육성	19 (4.3)	2 (1.3)	17 (5.8)	14 (3.8)	5 (6.7)	8 (4.9)	3 (3.7)
② 경제회복	16 (3.6)	6 (3.9)	10 (3.4)	13 (3.6)	3 (4.0)	6 (3.7)	1 (1.2)
③ 수출촉진/해외자본 유치	13 (2.9)	2 (1.3)	11 (3.8)	12 (3.3)	1 (1.3)	7 (4.3)	3 (3.7)
5. 국민을 위한 정치	**28 (6.3)**	**8 (5.3)**	**20 (6.9)**	**18 (4.9)**	**10 (13.3)**	**9 (5.5)**	**8 (9.9)**
① 국민을 위한 정치	11 (2.5)	5 (3.3)	6 (2.1)	8 (2.2)	3 (4.0)	3 (1.8)	3 (3.7)
② 서민을 위한 정치	8 (1.8)	2 (1.3)	6 (2.1)	6 (1.6)	2 (2.7)	4 (2.4)	1 (1.2)
③ 물가를 안정시키기	5 (1.1)	-	5 (1.7)	2 (.5)	3 (4.0)	1 (.6)	2 (2.5)
④ 정치 잘하기	4 (.9)	1 (.7)	3 (1.0)	2 (.5)	2 (2.7)	1 (.6)	2 (2.5)
6. 기타	**31 (7.0)**	**9 (5.9)**	**22 (7.6)**	**26 (7.1)**	**5 (6.7)**	**11 (6.7)**	**10 (12.3)**

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직장인은 '구조개혁/효율적 행정'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적절한 정책수립'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적절한 정책수립'과 '구조개혁/효율적 행정'의 반응 순서가 동일하다. 생활만족도의 면에서는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 '구조개혁/효율적 행정'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적절한 정책수립'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응답자들은 IMF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대처로서, 실업대책 마련이나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 적절한 정책 수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직자들이 직장인보다 실업대책 마련 등 적절한 정책수립의 필요를 지적한 경우가 더 많았다.

논의 및 결론

아래에서는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성별 생활만족도수준별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결과와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 사람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있어, 토착심리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의 비교

실직자와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에서의 차이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에 있어서, 실직자는 적극적 문제해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직장인은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한다. 뿐만 아니라 IMF 극복을 위해 본인이 취해야 할 대처방안으로, 실직자는 공부를 하고 기술습득을 하여 능력을 향상하는 자기계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직장인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실직자들은 직장인보다 공부나 자기개발 정보수집과 같은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직자는 자기의 능력을 향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처를 많이 하고,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나 기분전환의 노력 등 자기조절적 대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직자가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식의 대처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표집대상 실직자들은 실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여 재취업을 하려는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실직자와 직장인은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면에서 볼 때, 직장인은 가족보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직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인에 비해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을 제공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가족의 도움은 친구의 도움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직자는 직장인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이러한 가족의 도움은 친구의 도움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은 내용의 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직장인은 정신

적 위안과 같은 정서적 도움을 더 많이 받은 반면에, 실직자는 정보제공이나 구직알선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적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 한편 김명언과 노연희(1998)의 연구에 의하면, 실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중에서 정서적 지원은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 증상에, 정보적 지원은 재취업 기대와 기능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이 스트레스 반응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시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경험에서도 실직자와 직장인은 차이가 있다. 직장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반면, 실직자는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과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자와 직장인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매우 다르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면들이 있다. 실직자와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사고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즉 극복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자기의 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등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과 극복하려는 생각 및 반성과 같은 자기조절에 대한 생각을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고뿐만 아니라, 정서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직자와 직장인 모두 삶의 회의나 무능력감과 같은 절망을 가장 많이 느끼며, 그 다음으로 능력개발이나 창업에 대한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비록 두 집단 모두 절망을 가장 많이 느끼는 점에서는 같으나, 실직자가 직장인보다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MF시대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를 분석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도 각오와 절망이 가장 대표적인 정서로서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IMF시대 이전에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불쾌감과 분노가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정서로서, 차이가 있다. 경제불황기의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정서가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이 아니라 삶의 허무를 느끼고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며 죽고싶을 정도로 절망한다는 사실은, 실직이나 실직불안 등 미래가 불확실하고 극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의 생계문제에 위협을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한 절망과 동시에, 한편으로 능력개발에 대한 각오와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결심을 다질 수 있는 것은, 절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바로 그 가족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정서의 공존상태를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가족과 같은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간접적으로 시사된다.

또한 실직자와 직장인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가 실용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IMF 극복을 위한 정신교육이나 경제현실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우는 구조조정과 노사협력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IMF를 극복해야 한다고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성별, 생활만족도수준별 스트레스 분석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남녀 모두 기분전환을 노력한다던가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자기조절식의 대처를 가장 많이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보다 자기계발을 하고 공부를 하며 적극적 처리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식 대처를 하는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절약과 같은 대처를 많이 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IMF시대 극복을 위해 본인이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등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능력을 향상하고 공부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기계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는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 다음으로 절약하고 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다. 또한 IMF시대 극복을 위해 학교가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절약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 현실회피,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 특히 절약행동을 많이 한다. 요약하면 남자들은 IMF시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계발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여자는 절약하는 방식의 대처를 더욱 많이 하는 차이가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표집된 여자들은 현재 직장인이거나 또는 최근까지 직장인이었다가 IMF시대가 되면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다. 한편 김의철과 박영신(1999b)의 연구에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다른 분석 집단과 달리 절약을 대처방식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성차가 밝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점에서 공통적이나, 그 다음으로 남자는 친구 도움, 가족 도움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친구와 가족의 도움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족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남녀 모두 적극적 문제해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남자는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에 대한 생각을, 여자는 상황이 호전되기를 막연히 소망하는 등 현실회피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생활만족도수준별로는 스트레스 경험이나 대처 및 사회적 지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에서 만족하는 집단이나 불만족하는 집단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였을 때 사회적 지원을 해 준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지만, 반응율을 비교해 보면 불만족집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받은 내용의 면에서도 만족집단이 불만족집단보다 정서적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불만족집단은 만족집단보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두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 만족집단은 절망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으로 각오 불안의 순서이며, 불만족집단은 절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각오 분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응율을 비교하여 볼 때, 불만족집단은 만족집단보다 절망과 분노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직자와 직장인을 표집하여 이 두 집단간의 비교와 성별 생활만족도수준별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직자 집단 내에서도 현재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재취업 가능성, 실직 전 직업에서의 만족도, 실직 전의 사회경제적지위 등에 따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직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의 스트레스 표상에 대한 종합

IMF시대 이전(김의철 · 박영신, 1997)과 IMF시대(김의철 · 박영신, 1999b)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이 연구에서 실직자와 직장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사실들이 발견된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있어서 자기조절이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는 점이다. IMF시대 이전에는 '자기조절' '회피' '적극적 처리'가 대표적이었고, IMF시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자기조절' '절약' '적극적 문제해결'의 순서로, 실직자와 직장인은 '자기조절' '적극적 문제해결' '회피'의 순서로 나타나므로써, '자기조절'이 일관되게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표집된 실직자들은 실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직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자기조절'이란 '기분전환 노력'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 '참고 수용하기' '정서적 안정 노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도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표상한다. 즉 노력, 의지, 인내, 신념, 끈기 등이 과거의 성공(김의철 · 박영신, 1998)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취(박영신 · 김의철, 1999)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자기조절이 부족하면 실패하는 것(박영신 · 김의철, 1999)으로 한국 사람들은 인식한다. 이에 비해 성패의 원인으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1999)이 한국 학생과 성인의 귀인양식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과 같은 여러 귀인요소들이 기존의 내부 외부, 또는 안정 불안정 등의 차원으로 분류되기 보다, 노력귀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조절요인과 능력 운명 운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과 같은 통제불가능요인으로 대별되었다. 그 동안 서양에서 발전해 온 귀인이론(Heider, 1958; Weiner, Frieze, Kukla, Reed, Rest, & Rosenbaum, 1972)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능력과 노력을 정의하고, 또한 통제부위신념이론(Rotter, 1966)에서는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신념을 외적통제와 구별되는 내적통제신념의 범주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이 내부귀인으로서의 공통성보다, 노력은 자기조절요인으로 능력귀인은 통제불가능요인으로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박영신 · 김의철, 1997; 1999).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를 할 때나 성취를 위한 원인으로서, 노력을 대표적 개념으로 하는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징은 한국 사람이 갖는 독특한 사고방식인 동시에, 행동방식의 기초가 되는 현저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의 내용 면에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IMF시대 이전의 분석(김의철 · 박영신, 1997)결과,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협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IMF시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김의철 · 박영신, 1999b)했을 때, '정서적 도움' '없음' '정보적 도움'의 순서이며, 실직자와 직장인의 경우에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없음'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서적 도움이란 '정신적 위안' '진실한 대화' '위로' '격려' '기분전환'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박영신 · 김의철 · 김영희 · 민병기, 1999), 부모나 교사 및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폭력가해행동이나 폭력피해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Park & Kim, 1999)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직자의 경우에는 정서적 도움보다 정보적 도움에 응답한 사람이 약간 더 많으므로써, 실직과 같

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구직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조언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친구가 중요하다. IMF시대 이전 분석에서(김의철 · 박영신, 1997) 사회적 지원자로서 '친구' '가족' '선후배'의 순서로, IMF시대에는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김의철 · 박영신, 1999b)나, 본 연구에서 모두 '없음' '친구' '가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직자의 경우에 친구와 동일한 비율로 가족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므로써, 실직으로 인한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친구 못지 않게 배우자나 부모와 같은 가족이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공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중학생부터 현저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미(2000)의 연구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받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상황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친구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받지만,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더욱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의 성공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김의철 · 박영신, 1998)이나 미래의 성취를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박영신 · 김의철, 1999)으로, 친구보다 부모가 가장 많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므로 성취를 위한 사회적 지원 제공자로는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 제공자로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더욱 기여를 하며, 실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친구 못지 않게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IMF지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관련 표상들이 호황기일 때와 거의 유사한 측면들이다. 문화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양식이라고 본다면, 이상에서 밝혀진 세 가지의 특징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불황기 전후 스트레스에 대한 표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도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b)은 이러한 차이점을 스트레스 경험, 정서,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즉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차이로서, IMF시대 이전에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는 반면, IMF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 경험 후의 정서로서 IMF시대 이전에는 불쾌감이 가장 많았다면, IMF시대에는 절약을 결심하고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강한 각오와, 한편으로는 삶의 회의와 무능력감 등 절망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IMF시대 이전에는 과반수 이상이 친구의 도움을 받은 반면에, IMF시대에는 약 과반수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은 점이다. 이 연구에서 실직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선행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절망이나 각오와 같은 정서가 많이 나타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직자의 경우 관심을 끄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실직자들은 재정적 어려움 이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의 회의와 같은 절망을 능력개발 등에 대한 각오의 정서보다 많이 느낀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불황이 사람들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및 사회적 지원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

러한 일련의 결과들로부터 사회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사회환경의 중요성은 박영신 · 김의철 · 박동현(199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사회환경 요인으로 규제완화정책이 안전문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자나 담당 공무원과 같이 안전관련 전문가들이 규제완화정책 이후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 경우가 감소했다고 보는 경우의 약 3배나 되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촉진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점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련 표상이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국가적인 경제불황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 경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별로 볼 때,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남자는 여자보다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 등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욱 절약적인 생활을 하였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의 사고에 있어서도 남자는 여자보다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나 극복하려는 생각 등 자기조절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막연히 소망한다던가 상황을 피하는 등 현실회피적인 생각을 더욱 많이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도 남자는 친구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는 반면, 여자들은 친구의 지원과 동일하게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으므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수준별로는 불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다는 반응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들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기효능감 수준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이상윤, 2000),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이나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가 낮았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신현미, 2000)은 이외에도 관계효능감이나 학업성취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가 낮았다.

사회문제 연구에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본 연구 외에도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김의철 · 박영신, 1997; Kim Park & Kim, 1998; 김의철 · 박영신, 1999b)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IMF시대 전후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기초와 역동을 파악하려는 하나의 시도들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외에도 한국인의 성취의식(김의철 · 박영신, 1998; 박영신 · 김의철, 1999)에 대해, 토착심리학적 시각에 기초를 두고 분석하므로써, 한국 사회가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왔던 높은 교육적 성취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인 원동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통심리학적 접근방법의 문제점과 파라다임의 위기를 인식하고, 인간 유기체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대안적 과학적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모형(transactional model)의 철학적 시각(Kim, 1999a)에 기초하고 있다. 스트레스나 성취와 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심리현상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의 현저성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문화적 개념임을 알 수 있으며,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실재하는 현상학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분석결과(김의철 · 박영신, 1997; 김의철 · 박영신, 1999b)와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경제불황기 전후의 스트레스 경험이 매우 다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기조절적인 대처를 가장 많이 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역동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성취의식 관련 연구결과(김의철 · 박영신, 1998; 박영신 · 김의철, 1999)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성공이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력이나 의지와 같은 자기조절적인 요인이며,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도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물론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하여 왔다. 예컨대 Lasarus와 Folkman(1984)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문제해결대처와, 해가 되는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 아무 것도 못할 때 희망을 유지하기 위한 정서중심적인 대처를 제안하였다. Thomas(1976)는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을 회피양식, 강요양식, 순응양식, 협력양식, 타협양식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Leana와 Feldman(1990)은 실직자가 보이는 대처행동 6가지가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실직관련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증상중심적 대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Kinicki와 Latack(1990)은 행동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통제지향적 대처와,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는 회피대처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양식들을 한국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 외에 정서에 관련된 결과들도,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조망된 부분들이 있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실직과 관련된 정서로서 불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예컨대 실직집단은 실직 후 재취업집단보다 불안과 긴장이 높았으며(Kasl & Cobb, 1982), 실직자 집단 내에서도 경제적 곤란도가 클수록 불안과 우울 및 적대감이 높게(김명언 · 노연희, 1998)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람들의 정서를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위기상황에 직접 부딪치고 있는 실직자나 직장인들은 불안보다 절망과 같은 보다 극단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 불안 정서는 오히려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과 같이 간접적으로 경제불황의 위기를 느끼는 경우에 현저하게 높다(김의철 · 박영신, 1999b). 그러므로 경제불황기의 실직자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관련 정서를 연구할 때는 절망과 같은 정서들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이 현상학적으로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 토착심리학적 접근이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그 동안 귀인 연구나 스트레스 연구에서 서양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에게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으로 능력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자기조절로 대표되는 노력이나 의지가 중요(김의철 · 박영신, 1998; 박영신 · 김의철, 1999)함에도 불구하고, 성취에 대한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을 동등한 가중치를 둔 변인(Weiner, 1992, 1994)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참고 노력하는 자기조절적 대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의 맥락에서만 분류(Lasarus & Folkman, 1984)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Lumsden(1981)도 스트레스를 자극으로서나 반응으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트레스는 문화적인 개념으로서, 고통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대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지적 평가나 대처 및 사회적 지원과 같은 매개적인 심리기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관계적인 현상으로서, 특정 사건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여부는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스트레스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개인의 가치 틀과 문화적 의미체계가 필연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자기, 자기조절에 대한 인식 및 이러한 토착적 개념구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나아가서 서양인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국 사람의 심리현상과 행동양식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히 그러한 심리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된 것일 때,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시도될 가치가 있다. Hofstede(1991)의 비교문화적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본다면, 한국은 집단주의적이고 여성성이 강하며 권력거리가 큰 사회이다. 반면에 현재 한국의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적 틀이 되고 참고문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미국 심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남성성이 강하며 권력거리가 적은 사회이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교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고, 아직도 그러한 가치나 의식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는 반면, 서구사회는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일한 씨앗도 다른 토양에 심어졌을 때, 열매의 맛과 질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나 성취와 같은 보편적인 개념도 역사와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표상화되었을 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되는 현상과 영향은 판이한 것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의 저변에 있는 심리적인 역동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토착심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상진과 한규석(1998)은 심리학에서의 객관성과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사회를 관찰하여 자생적인 개념들을 발굴하고 탐구하는 것이 한국인의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정운과 한성열(1998)도 현재 심리학 이론의 전제가 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를 벗어나 토착심리학적 이론구성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현상에 대한 낯설게 하기를 통한 개념화를 제안하고 있다.

Bandura(1997)가 지적한 바처럼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을 지닌 작인으로서의 인간을 가정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선형모형적 접근이 아니라 상호작용적 접근(Kim, 1999b)을 분석의 틀로 수용할 때, 우리는 한국 사회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단순히 피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 심리로부터 재생산되고 있는 의미체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통심리학적 이해가 갖는 문제점과 패러다임의 위기를, 과학에서의 상호작용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이러한 개념적 틀이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구인과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김의철 · 박영신, 1999a).

이 연구 및 일련의 연구 결과들에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밝혀진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관련된 심리적 개념들은, 후속연구에서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양적 측정이 가능한 질문지를 제작하여, 한국 사람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

기효능감 등의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명언 · 노연희(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115-137.

김의철 ·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김의철 ·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김의철 · 박영신(1999a). 서장.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총서2. 교육과학사.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김의철 · 박영신(1999b).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김정운 · 한성열(1999).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김춘근(1999). IMF시대 직장인과 실업자의 스트레스 조사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 김의철(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 · 중 · 고 · 대학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1(2), 71-97.

박영신 · 김의철(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박영신 · 김의철 · 김영희 ·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박영신 · 김의철 · 박동현(2000).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시사: 규제완화정책의 영향 분석과 안전효능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5(2), 161-193.

신현미(2000).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윤(2000). 인문고 학생과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훈구(1998). IMF시대의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집**.

중앙일보. 1998년 9월 16일, 23일, 24일자.

최상진 · 한규석(1999).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통계청(1999). 인구동태통계연보(이혼율변화). GNP 변화.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andura, A.(1999).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1-42.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MA: Cambridge University.

Harre, R., Clarke, D., & De Carlo, N.(1985). ***Motives and mechanisms: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action.*** London: Me-

theun.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Kasl, S. V. & Cobb, S.(1982). The experience of losing a job: Some effects on cardiovascular functioning.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34,*** 88-109.

Kim, U.(1995). Psychology, science, and culture: Cross-cultural analysis of national psych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0,*** 663-679.

Kim, U.(1999a).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Kim, U.(1999b). Indeginous,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heoretical, conceptual, and epistem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in the 3rd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Taipei, Taiwan.

Kim, U., & Berry, J. W.(1993). ***Indigenous psychologies: Experience and research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CA: Sage.

Kim U., Park, Y. S., & Kim, U.(1998).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Korean housewives and high school students: Indigenous analysis of stress, appraisal, coping. Paper presented 1998 International Sympopsium on Stress and Quality of Life.

Kim, U., Park, Y. S., & Park, D. H.(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5,*** 55-73.

Kinicki, A. J., & Latack, J. C.(1990). Explication of the construct of coping with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339-360.

Koch, S., & Leary, D. E.(1985) (Eds.). ***A century of psychology as science.*** New York: McGraw Hill.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York: Springer-Verlag.

Leana, C. R., & Feldman, D. C.(1990).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field studies. ***Human Relations, 43,*** 1155-1181.

Liem, R., & Liem, J. H.(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6.

Lumsden, D. P.(1981). Is the concept of 'stress' of any use, anymore? In D. Randall (Ed.), ***Contributions to primary prevention in mental health.*** Toronto: CMHA.

Park, Y. S., & Kim, U.(1999).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Korea: The role of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wan.

Platt, S.(1984). Unemploment and suicidal behavior: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 93-115.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Shweder, R. A.(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homas, K. W.(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Weiner, B., Frieze, I. H., Kukla, A., Reed, I., Rest, S., & Rosenbaum, R. M.(1972). Perceiving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lins & B. Weiner.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Weiner, B.(1992). *Human motivation: Metaphors, theories, an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Weiner, B.(1994). Ability versus effort revisited: The moral determinants of achievement evaluation and achievement as a moral system. *Educational Psychologist, 29(3),* 163-172.

韓國心理學會誌: 社會問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2000, Vol. 6, No. 1, 85~117

The experience of stressful life-events,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mong salaried employees and the unemployed: An indigenous analysis

Young-Shin Park[1] and Uichol Kim[2]

[1]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and [2]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ress experience of salaried employees and the unemployed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i.e., in which Korea receive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y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in 1997, participants were asked to write, in an open-ended response format, what they consider to be the most stressful, their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from whom they received social support, the type of social support received, the type of coping strategy us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ir coping strategy.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553 participants: salaried employees working in a small to mid-size firm (n=269), salaried employees working in a large firm (n=98), and those who were unemployed (n=186). The salaried employees are most like to report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unemployed the future uncertainty as being the most stressful. In terms of coping style, the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use active coping strategies, while the salaried employees are most likely to use self-regulation. The unemployed are most likely receive social support from bo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ile the salaried employees are most likely to receive social support from friend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although the nature of stressful event has changed the type of coping strategies used and the nature of social support received remains constants across different samples.